

자료제공: 2023. 12. 20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

의료자원과장

정지애

2133-9300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2쪽

의약무팀장

이정목

2133-7531

## 서울시내 야간약국 계속 운영된다

- 서울시내 밤 10시 이후 운영중인 약국 총 177개소로 의료공백 우려 없어
- 응급의료포털과 스마트서울맵 통해 자치구별 야간 운영중인 약국 안내해
- 인근에 약국 있는 30개 의료기관에 '서울형 야간·휴일 소아의료체계'도 구축

- 서울 시내에서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중인 약국은 총 177개소임. 이 중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공공야간약국은 33개소임. 즉 예산 지원받는 공공야간 약국은 전체의 19%의 비중임.

※ 주말포함 22시 이후 운영 약국 수(112개)

(2023.12.19 기준, 단위:개소,)

구분	평일	주말포함(평일, 주말)
총계	177	112
일반약국	172	84
공공야간약국	5	28

- 평일 밤 10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 177개소(공공야간약국 5개 포함)

- 현재 공공야간약국이 연초부터 중단되어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야간 운영중인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. 응급의료포털 E-gen (<https://www.e-gen.or.kr>)의 병원·약국 메뉴에서 약국 찾기→「심야운영약국 목록 다운로드」를 클릭하여 22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 확인 가능.

- 서울시 스마트서울맵을 통해서도 자치구별로 상세히 지도화하여 약국별, 요일별 운영시간 등을 찾기 쉽도록 안내할 것.

- 안전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해열제, 종합감기약, 해열진통제, 소화제 등 13품목은 이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편의점 7,354곳에서 구매 가능하여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.
  
- 아울러, 현재 서울시는 야간·휴일에도 아픈 아이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‘서울형 야간·휴일 소아의료체계’를 구축하여 인근에 약국이 있는 곳으로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음.
  - (1차 우리아이 안심의원, 9개소) 소아청소년과 전문의, 평일 21시까지 진료
  - (2차 우리아이 안심병원, 9개소) 응급실 운영기관 중 24시간 운영
  - (3차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, 3개소) 상급종합병원 중 24시간 운영
  - 달빛어린이병원 (9개소) 야간·휴일 소아외래진료 가능 의료기관
  
- 서울시는 야간에 소아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약사회 등 관계 전문기관과 지속 협의하겠음.